

‘새 동북아 시대’ 한반도 평화 모색

한국동북아학회, 오늘 DJ센터서 ‘한반도 평화’ 학술대회 80여명 전문가 참여 심층 논의·새로운 의제 제시 전망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대비한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동북아학회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동북아 시대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동북아학회가 주관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한국문화예술학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통일부와 통일연구원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등과 같은 다채로운 주제 아래 80여명의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션 1에서는 박재완 국민대 교수, 최재덕 원광대 교수, 문현미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등을 전망한다.

세션 2에서는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정필 동국대 교수, 조우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 관광정책의 전망과 하이브리드 남

북관협력 추진방안 등을 제시한다.

세션 3에서는 양병기 청주대 명예교수,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특별기획 세션에서는 김상규 한양대 교수, 이대학 한국외대 교수, 홍석훈 창원대 교수가 중국지역학연구의 쟁점과 전망, 몽골의 체제 전환, 북한학의 가능성과 대안 등의 주제를 가지고 동북아 지역연구의 방법론을 모색하는 콜로키엄 형태로 진행됐다.

한국동북아학회 김형수 회장은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 위상이 변모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책임 부담을 강조하는 요구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분단국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지위에 걸맞은 국가전략과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동북아학회는 1996년 창립

한 학술단체로 지난 9월30일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인 ‘한국동북아논총’ 100호를 발간했다.

한국동북아학회는 창립 이후 연간 4회의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회원들의 학술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학술대회 외에도 각종 학술 세미나·강연·토론회 등을 통해 국내·외 연구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학술교류 활동을 전개해 왔다. ‘동북아지역학의 연구중심’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동북아학회의 구성원들은 동북아 지역연구에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의 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동북아학회는 매년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공동 학술회의를 주관하며 학술적 차이를 넘어 정책적 차원에서 시사구시를 실천하고 있어 관련 학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단체다.

/임재만 기자

오늘의 날씨

▶별도 지역 날씨 최저/최고/인

해돋이 06:38 해질 17:58
달돋이 15:29 달짐 00:50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50 (우산 챙기세요)
- 빨래 40 (실내건조 좋아요)
- 세차 30 (내부정돈 좋아요)
- 운동 70 (준비운동은 충분하)

지역	강수확률(%)	지역	만조	간조
광주	30-60	목포	09:29	03:17
목포	30-60		22:37	15:03
순천	20-30	여수	05:14	11:06
여수	20-30		18:12	---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16/토	(15/16)	(13/13)	(15/20)	(14/16)	(17/18)	(19/20)
17/일	(4/13)	(1/11)	(4/12)	(2/13)	(3/14)	(12/15)
18/월	(4/17)	(3/14)	(5/17)	(2/16)	(3/18)	(11/18)

▶날씨안내 : 국민일보131

서구,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광주 서구가 지난 13일 양성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 협약하고 인증패를 수여했다.

올해 선정 기업은 청춘발전협동조합, ㈜주연, 제이아이종합건설㈜, 전일산업건설㈜ 4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 문화체육 행사 실시 등의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여성인력을 적극 채용하는 등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이번 인증 협약식 이후에도 채용, 승진, 임금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및 근무환경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인재영기자



미국에서 조종하는 배달 드론 14일 오전 북구 드론공원에서 실리콘밸리 투자유치단 참가기업인 호그리니어가 5G로 연결해 9천42km 떨어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택배 드론을 원격 제어해 커피를 배달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백지화

서구 유치원 서류 위조 의혹·학부모 반발에 제동

광주시교육청은 회의록 위조 등으로 논란을 빚은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구 S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해 내년 3월 목표로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여러 잡음이 일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운영위원 회의록이 위조됐으며 유치원 측과 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도 고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 교육 운영과정을 선호하면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S 유치원은 선정에 앞서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운

영위원 10명 모두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데 찬성했다는 내용의 서류와 함께 사업 신청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운영위원 10명 중 6명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데 찬성했다고 서류를 수정했다.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S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 원감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만 기자

광주·전남 기간제교사 비율 10%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약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학교급별, 설립유형별 정원 내 기간제교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은 9.8%였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감축, 교과목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재만 기자

양옥균 북구의원, 위기가구 지원 조례 발의

양옥균 광주 북구의원이 광주시 최초로 발의한 ‘광주시 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관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히 발굴·지원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발굴대상을 생계 곤란, 재난, 질병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규정 ▲대상자에 따라 공적



지원과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 ▲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단체에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양옥균 의원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주변의 위기가구들이 발굴돼 적절한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태훈기자

남구,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광주 남구는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과 체육복, 원

격수업용 스마트기기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이달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등을 거쳐 최종 조례안이 완결되며, 오는 11월말에 개최 예정인 남구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심의 의결을 거쳐 12월말에 공포된다. /조태훈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남광주시장

광주의 새벽을 여는 곳 남광주시장

남광주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수산물시장입니다.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남광주시장은 1930년 ‘신광주역’의 개통과 함께 별고, 보성 등에서 직접 잡고 기른 신선한 해산물과 농산물을 열차에 싣고 와 팔던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수산물, 야채, 국밥골목 등이 대표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 ‘문화관광형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주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장이 가진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광주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TV 후원 : 광주광역시동구 문의 : 062)650-2099